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 2200호 2021. 7. 18. 연중 제16주일 · 농민 주일

제1독서 : 예레미야서 23,1-6

제2독서 :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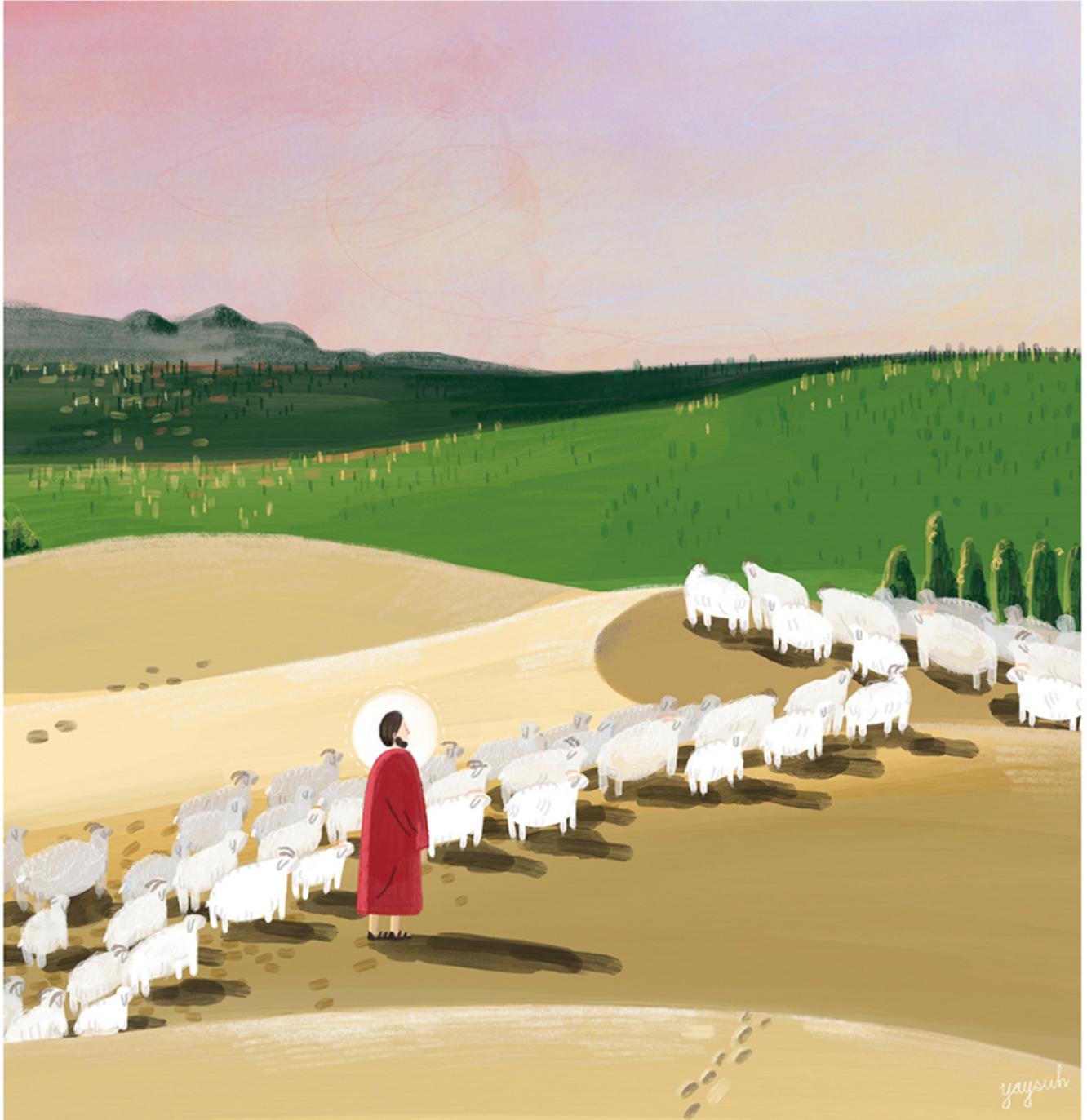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6,30-34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회 발레리아

만은 사람이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쉼의 은총

†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은 공부나 운동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만일 공부와 운동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한다면, 이내 힘이 떨어져 지치고 제풀에 걸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 또 운동경기를 할 때 쉬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쉴 때에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겠죠.



4성북지구 석관동 성당
우요한 세례자요한 신부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잠깐이라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사람들에게 떨어진 곳으로 가시려고 하죠. 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선 그들을 뒤쫓아 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는지 또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돌보아주십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쉬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함으로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물론 쉬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쉬는 시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실 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본인 스스로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신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이 쉬고 있을 때,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거랍니다.

도랑도랑
성경이야기

요시야가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열왕기 하권 23,21-23)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계약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위하여
○○○ 축제를 지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판관들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임금들과 유다 임금들의 시대 내내,
○○○ 축제를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야 임금 제십팔년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 축제를 지내게 되었다.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각 카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는 '거르고 지나가다'란 뜻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바다에 치는
물결



도

이탈리아
음식



파게티

아버이 날, 스승의 날에
달아 드리는 꽃



네이션

그림_이지영 카타리나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배에서 내린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 ① 가엾은 마음 ② 귀찮은 마음 ③ 짜증나는 마음



2021년 7월 18일 일요일

마음 날씨



제 목 : 모내기 체험

유치원에서 강화도에 모내기를 하러 갔다. 처음으로 도시락도 싸고 친구들이랑 큰 버스를 타서 엄청 기대됐다. 배도 타고, 설매도 타고, 도시락도 먹고, 모내기도 했다. 흙에 발이 푹푹 빠져서 못 났까 봐 걱정도 됐다. 엄마가 농부 아저씨들이 힘들게 키운 쌀이니 잘 먹으라고 했다. 나는 원래 밥 안 남기는데. 어쨌든 농부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글/그림_하윤 아녜스



오늘의 비사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 영성채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